

# “빛 없는 2차 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민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으로 민생 빅텐트 국가 모든 역량 코로나19로 어려운 분께 가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차 추가경정 예산(추경)안 집행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빛 없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부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양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민생 입법 바리케이트 철거가 그 시작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건없는 재가동으로 민

생 빅텐트를 세우도록 야당과 대화하자”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은 국제 없이 빛을 안 쳐도 가능하다”며 “제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모든 논의를 임하겠다. 야당도 그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부동산 공급 대책은 6월 임시국회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야 한다. 피해지원은 물론 공연업·여행업 등 위기기업종도 손실지원이 필요하다. 모두 이웃이고 다같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의제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 삶의 질 높이는 부동산 법안 등을 제대로 챙기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6월 국회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집단면역 형성 관련해 민주당은 “백신 접종에서도 K-방역 시기가 펼쳐졌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 접종이 시작된지 110일만인 어제 국민 4명 중 1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인 3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끝내는 것으로 목표로 빈틈없는 방역, 원활한 백신 접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며 “당정은 오점종 부작용 등 국민불안 요소를 제거해 안심 접종 신속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17일 부안군을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 “해양수산 대도약의 기회로”

### 우범기 정무부지사 부안 찾아 주요 현안 관련 현장행정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17일 부안군을 찾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격포항과 위도 양도도 해역 현장을 찾아 각종 현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격포항은 2023년 세계잰버리대회 성공적 준비와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전북도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접안시설 개선과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도는 지난 2017년부터 낚시와 관광이 가능한 다기능어항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고, 대리항은 어촌뉴딜사업(지역특

화사업, 캠핑장 조성 등이 지난 2019년에 선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두 사업 모두 올해 준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 부지사도 둘러본 위도도 인근 해역은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어구 낚시망(54톤, 약 216톤)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지난 2일부터 진행 중으로,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 부지사는 인근 해역에서 해저에 침적된 각종 오·폐물 수거와 해저 경운 중인 어장 정화선의 직접 현장을 방문, 현황 청취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어촌의 생활수준 향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건강하고 안전한 세대교체 전략을 통해 해양수산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돼야

### 민주 이원택 의원,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부안군)은 17일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농가 등에서는 왕겨·쌀겨 등이 폐기물인지 여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도당, 미래세대 혁신 특위 위원장에 한승진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한승진(비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미래세대 혁신특별위원회장에 임명됐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미래세대 혁신특별위원회 임명인을 통과시키고, 한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래세대혁신특별위원회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창출과 주거·교육 문제 해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승진 위원장은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운영해 공경과 원칙을 내세우는 미래세대의 힘으로 당의 혁신과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건강한 도시숲 위한

###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 민주 윤준병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가로수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 의원은 “최근 가로수의 중요성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뿐만 아니라 상가·학교·공원 등의 나무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목 수준의 가로수 가지치기 관행은 토건 개발이 민원했던 과거의 개발 중심의 부실한 인력, 이제는 환경과 경제 모두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진우 가로수사랑하는사람들 대표가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이호우 아보리스트가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 대통령 될 것”

### 정세균 전 총리, 대권 도전 공식화… “혁신경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약속”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다. 모두가 잘 사는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을 깨려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진국을 좇아가는 경제모델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까지 우린 이미 세계의 중심”이라며 “이제 그 힘을 새롭게 조직해 ‘발로 뛰 코리안 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국민소득은 20위 안에 못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들고 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해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여력으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다.

정 전 총리는 청년층과 관련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세대와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흡수자, 흡수자,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줘야 한다”며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의 일자리를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중 15만호는 빈집 아파트이고, 나머지 15만호는 빈의 빈집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뉴스1

## 도의회 예결특위,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진행 중’

### 청사 접근성 제고 측면 검토·이월예산 효율적 운영 개선 주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는 결산심사 2일 차인 17일 전북도 지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복지국, 복지여성보건의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과목별 미수납액 징수노력, 세출사업별 불용예산액은 연도말 추경 등에 감소시키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코로나19 관련 청사출입시스템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사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후 도민들의 청사 접근성 제고 측면

검토를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은 명사이월된 ‘가족농노공동자원화 사업’이 예비비지출대상 선정 취소로 예산액 전액이 불용됐는데, 현액으로 관리되는 명사이월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기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의 명사이월 내역을 질문하면서, 본사업의 명사이월이 아닌 농촌지역 인구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교이월된 전라

유학진흥원 건립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연도별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조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환경복지국 소관 세입분야 결산내역을 살펴, 미수납액 사업 중 재산입대수입 미수납액을 익년도 이월처리로 된 사유를 확인하는 등 재원별로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판단해 세입누락이 없도록 하고, 예산현액과 수입액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세입결산 중 시·군·자치단체 등 미수납된 내역을 확인하며, 시·군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노인복지·성평등 기금 조성액 확대, 적절한 기용 방안 마련을”

### 박용근 도의원 “조성액 대비 2% 내외 활용 불과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활용돼야”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정수) 도의원이 17일 전북도의회 제 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의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성평등 및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 확대 및 적절한 기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말 기준 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은 약 39억5,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은 약 21억원에 달한다”며 “그중에도 지난해 각 기금의 지출액은 각각 전체 대비 약 2% 내외인 4,100만원과 4,300만원에 불과해 적절한 기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가 강타한 이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는 여가 중심이 아닌 더욱 다양한 범주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정책 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전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단체 4개(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가족복지문화원, 군산여성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연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기금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성 규모를 식품진흥기금 등과 같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며 “도민 보호의 관점에서 기금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이준석 국회 대표 오늘 전북 방문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5·18을 중심으로 정신적인 두꺼운 벽을 녹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경제 현장을 중심으로 호남에 한 단계 더 다가갔다는 취지로 이번 일정을 결정했으며,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전북을 택했다고 전했다.

18일 일정은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배현진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북동행위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며, 새만금, 군산형 일자리 기업 현장, 국가수소산업단지 현장, 전주역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현장, 전주서부신시가지 등을 찾아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파격 행보에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 힘이 앞장서야 된다고, 그 첫 과제로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공감해 취한 후 호남을 먼저 방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